

3) 개관 7개월 차인 '선승관'이 뭐예요?



4,5) 양 캠퍼스 대학가 건축법 위반 실태



6) 학교직원 절반은 2년마다 교체되는 비정규직



2018학년도 논술고사

1주일 연기된 수능시험으로 순연된 우리학교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이 지난달 25일, 26일 실시됐다. 서울과 국립캠퍼스의 논술우수자전형 지원자 수는 각각 30,515명, 17,874명으로 72.7:1과 44.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안 '대학 기본역량진단' 발표

도준록 기자 dgl0915@khu.ac.kr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후신 격인 정책이다. 김상곤 부총리에 따르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전체 대학 중 하위 40%로 평가받은 대학들은 총 2만 명 만큼의 정원감축을 권고받는다. 동시에 상위 60%로 평가받은 '자율개선대학'들에는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 가능한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가장 다른 점은 지역별 상대평가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5개 권역으로 나뉘고, 전문대는 ▲수도권,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5개 권역으로 나뉜다. 권역별 상위 60% 대학으로 평가받은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를 피하며 자율협약형 대학지원을 받는데, 타 재정지원사업 지원 시 인센티브를 얻는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등급을 받은 수도권 대학들도 이처럼 지역별 평가를 받게 되므로 치열한 진단 준비가 예상된다.

이 1단계 진단에서 교육부는 ▲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2 단계 진단을 받는다. 이 대학들은 2 단계 진단을 통해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지역사회, ▲기여도·재정,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받고 1·2단계 결과를 합산

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2단계 진단을 받았더라도 기본 요소 등이 우수한 일부 대학의 경우는 검토 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될 수 있다.

자율개선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 4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 권고 대상이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권고 수준에 대해 "2만 명 이내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2017년 12월 중으로 진단 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1·2단계 진단을 진행한다. 최종결과는 2018년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진단 결과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일반재정은 2019년부터 지원된다. 이후 2020년에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보완 평가를 시행해 개선된 대학은 추가

재정지원 노력 및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된다.

한편, 지난 12월 1일 교육부가 각 대학 관계자를 초청한 관련 공청회는 반대자들의 무대 점거로 파행을 겼었다. 이날 공청회 진행을 막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학위원회'는 "고등교육재정 확충하고, 고등교육혁신 대책 수립하라"며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소요에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평가를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권오병 원장은 "우리학교의 경우 정량적인 부분에서 괜찮으나 융합전공 개설 등 학사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정부의 취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모두 만족하는 묘안을 찾는 데 온 구성원이 협의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마 컨퍼런스' 11월 16일부터 3일 간 '교육의 미래'로 머리 맞댄 학생과 석학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현지시각 14일 오후 7시(한국시각 15일 새벽 3시), 다양한 전공과 연령의 '로마컨퍼런스기획단' 22명이 'Conference on Future Education'에 참여하고자 약 13시간의 비행을 거쳐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다. '속도와 복잡성,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시대의 효과적인 학습'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는 16일부터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컨퍼런스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대학에서 처음 개최돼 올해로 2회를 맞았다. 세계대학총장연합(World University Consortium), WAAS(World Academy of Art and Science), Rome Tre 대학이 주최하고 세계석학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교육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는 우리학교도 공동으로 주최에 참여, 우리학교 대학생이 컨퍼런스에 참여해 교

육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한 축을 담당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를 맡은 국제 베이슨 연구소 Nora Bateson 소장은 "와인에는 분명 포도가 들어있지만, 포도를 꺼낼 수 없듯 교육 또한 많은 사회적 조직과 정치, 경제와 얹매여 있다"며 "그렇기에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대한 노력과 종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러한 컨퍼런스가 지속되는 것이 첫 걸음"이라며 마무리를 지었다.



신축 단과대학동(서울) 임시사용 허가 날 듯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우리학교가 지난 11월 23일 동대문구청에 서울캠퍼스(서울캠) SPACE21 단과대학동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했다. 그간 동대문구청은 서울캠 정문 앞 도로문제를 해결해야 사용승인의 일환인 도로교통영향평가를 내준다는 완고한 입장을 펴왔다. 이 갈등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학교 구성원들은 단과대학동의 사용승인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했다. 하지만 우리학교와 구청은 지난 11월에 사용승인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SPACE21 법원이 동대문구청에 14억여 원에

건설사업단 장석원 팀장은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법인과 구청의 갈등은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건 학생이기에 임시사용승인과 정문 앞 도로 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방향으로 동대문구청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건축과 이승민 주임 또한 "신축 단과대학동 임시사용승인에는 도로 문제를 이유로 단과대학동의 임시 사용승인을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를 인정했다.

'정문 앞 도로문제'란 2016년 대법원이 동대문구청에 14억여 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과 매년 1억 4,000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경희학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발생한 갈등을 일컫는다. <관련기사 : (2보) 행복기숙사 사용승인신청 제동…26일 입사 불투명/대학주보 온라인, 2017.8.17>

물론 정문 앞 도로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임시사용승인과 분리해 논의하는 것으로 동대문구청과 합의되면서 이과대학, 간호대학, 한의과대학의 이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측은 "신축 행복기숙사 임시사용기간인 내년 8월까지 정문 앞 도로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온로 ID : 대학주보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이번 호가 2017학년도 2학기 종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 중에도 온라인과
SNS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